

WILKINSON 작별의 침묵

내 운명은 얼마나 이상한 것이었던가.

언제나 혼자.

수많은 여자들 사이에 앉아.

결코 중심에 있지 않고.

그저 손님으로.

솔직히 그 역할이 불편하게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 주의를 늘 사로잡은 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여자들이 묻지도 않고 가져가는 무언가.

돈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가장 흥미롭지 않은 부분이었다.

그들은 관심을 가져간다.

호기심을.

생각을.

시간의 조각들을.

당신의 인지 에너지를 통째로.

그리고 대부분은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한다.

첫 번째 규칙은 언제나 같았다.

그들을 웃게 하라.

하지만 바보처럼 굴지는 말고.

유머와 어리석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앞의 것은 대화를 연다.

뒤의 것은 대화를 닫는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우아한 저녁 식사조차 결국 패스트푸드 한 끼와 다를 바 없어진다.

바로 그때 나는 강철에 관한 나만의 인류학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럴듯하게 들리기를 바랐다.

꼭 믿어지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나는 먼 어느 아침을 상상했다.

한 남자가 연애 약속에 나가려고 동굴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짝은 그를 보내 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숲을 지나 그를 따라갔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다.

누구와.

그리고 왜.

그 시절에는 모두가 자유로웠고, 난잡함이라는 말은 아직 사회학자들이 발명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 그는 격분했다.

그는 돌 하나를 집어 그녀를 쫓아 버리려고 그녀 쪽으로 던졌다.

돌이 바위에 부딪혔다.

불꽃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연기.

나머지는 바람이 했다.

그렇게 불이 태어났다.

연애 약속은 그 자리에서 끝났다.

일어난 일은 너무나 중요했다.

그것은 아직 어떤 설명서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Amazon의 설명서에조차.

그것은 관찰되어야 했다.

이해되어야 했다.

사용되어야 했다.

식탁의 여자들은 말없이 귀 기울였다.

아무도 먹지 않았다.

웨이터는 수프를 주방으로 도로 가져가 두 번째로 데워야 했다.

그러고는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던 몇몇 커플이 의자를 우리 쪽으로 당겨 왔다.

마치 연극 공연 같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저 그들을 웃게 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때가 내가 그럴듯하기를 멈춘 순간이었다.

그리고 믿어지게 된 순간.

나는 아무도 쓴 적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우리 조상들의 있을 법한 이야기.

나는 멈췄다.

Maggy를 바라보았다.

“계속할까요?”

그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으셨다.

“그래, 이 멋진 개자식아.”

그리고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나는 이야기를 이어 갔다.

불과 함께, 여자는 이 발견을 음식에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열은 맛을 바꾸었다.

그것은 자연 자체를 변화시켰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겨우 20년에 이르던 인간의 기대 수명이 서서히 40년을 향해 나아갔다.

불이 그것을 두 배로 늘렸다.

세균 오염이 줄었다.

감염이 물러났다.

인간의 몸은 시간을 얻었다.

그러다 어느 평범한 오후, 동굴 앞에서, 바로 그 여자가 돌 여러 개를 주워 들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서로 부딪쳐 보았다.

연구했다.

용광로도 없이.

제철소도 없이.

기술자도 없이.

그녀는 마침내 금속에 이르게 될 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훗날, 강철에.

그렇기 때문에, 한 여자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 여기 없을 것이다.

당신들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들을 결코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작별 인사 속에 감싸 넣을 수도 결코 없었을 것이다.

식탁은 침묵에 잠겼다.

다른 모든 침묵과는 다른 침묵.

기대의 침묵이 아니었다.

작별의 침묵이었다.

나는 Maggy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녀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작별하고 있는 것이 한 가족이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의 이야기와 작별하고 있었다.

Wilkinson 가족 여러분

천만에요.

나는 일어나 걸어 나갔다.

여자의 눈물을 나는 결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Ferdinando